

사도행전 프로젝트

“스데반의 설교 Ⅲ”

본문 : 사도행전 7:37-53

한 주간의 삶 나누기

찬 송 /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기 도 / 말은 이

오늘의 말씀 / 39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1 그 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행 7:39, 41)

□ 말씀 나누기

스데반은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을 자기변명이나 생명의 연장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증언하며, 동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해 왔는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말씀입니다.

□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의 마음

1.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야에서 나오자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39절) 모세를 거절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들을 거절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때로는 목회자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교훈하시는데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마음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사람을 먼저 보기 시작하면 쉽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말씀 자체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먼저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2.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그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굽은 그들을 괴롭히던 곳입니다. 종살이하던 곳이었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어려움을 만나자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습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평안함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사도행전 프로젝트

있습니다. 기도보다 쉬는 것이 좋고, 예배보다 다른 일이 우선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신앙은 잠시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3.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광야에서 사십 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42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했지만 마음은 우상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과 평안함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진실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지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모세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율법도 주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더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우상은 없는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1.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순간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외면했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말씀에 외면하셨나요?

중보기도 :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사랑과 기도와 나눔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담임목사님과 교회, 선교사님과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 등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헌금찬송 :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마침기도 : 주님의 기도(서로 축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